

독서 수업 지도안



행복한 책꽂이 시리즈 [도토리 싹을 올려라!]
김미희 글 | 박현주 그림 | 136쪽 | 180×225mm

초등학교 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 > 1. 재미가 톡톡 / 10. 문학의 향기
3학년 2학기 국어 > 4. 감상을 나타내요 /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4학년 1학기 국어 >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키워드

#어린이시 #동시 #선생님 #고민 #이야기 #친구 #추억

키다리

1 어떤 이야기일까요?

시를 사랑하는 ‘도토리 쌤’과, 시 쓰기의 즐거움에 눈떠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리’네 학교 교장 선생님인 도토리 쌤은 입는 옷부터 머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특이합니다. 게다가 울보로 소문났지요.

도토리 쌤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도토리 쌤을 울릴 어린이를 찾습니다. 고민이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도토리 쌤은 요즘 울지 못해서 시를 못 쓰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자신을 울려 달라고 하지요.

도리와 아이들은 저마다 고민과 이야기를 가지고 교장실을 찾아가는데, 과연 도토리 쌤을 울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는 시가 될 수 있을까요?



2 함께 읽어 보아요!

1. 도토리 쌤은 울보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2. 도리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친구들한테 ‘변기통’이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이름을 바꿔 달라고 엄마 아빠에게 졸라 대던 어느 날 도리는 돌연 이름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하는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3. 도리는 도토리 쌤에게 왜 그렇게 시를 쓰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도토리 쌤이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이유로 말한 것을 다음 중 모두 골라 보세요.

- ① 시 쓰기 대회에서 상을 타고 싶어서
- ② 시가 우리 마음을 통통 살찌게 해 주기 때문에
- ③ 멋진 시를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 ④ 개인 시집에 실으려고
- ⑤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4. 도리의 동생 '오리'는 도토리 쌤에게 반에 '흰 점 괴물'이 나타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흰 점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 ① 흰점팔랑나비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
- ② 하얀 물방울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친구
- ③ 피부가 벗겨져서 얼굴에 하얀 점이 생긴 친구
- ④ 수두 약을 발라서 얼굴에 하얀 얼룩이 생긴 친구
- ⑤ 몸에 하얀 물감이 튄 친구



5. 도리는 도토리 쌤과 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 쓰는 것이 무척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6. 도리네 반의 전학생 '유라'는 도토리 쌤에게 자신이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1. 유라는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2. 도리네 반의 전학생 '유라'는 도토리 쌤에게 자신이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3. 유라는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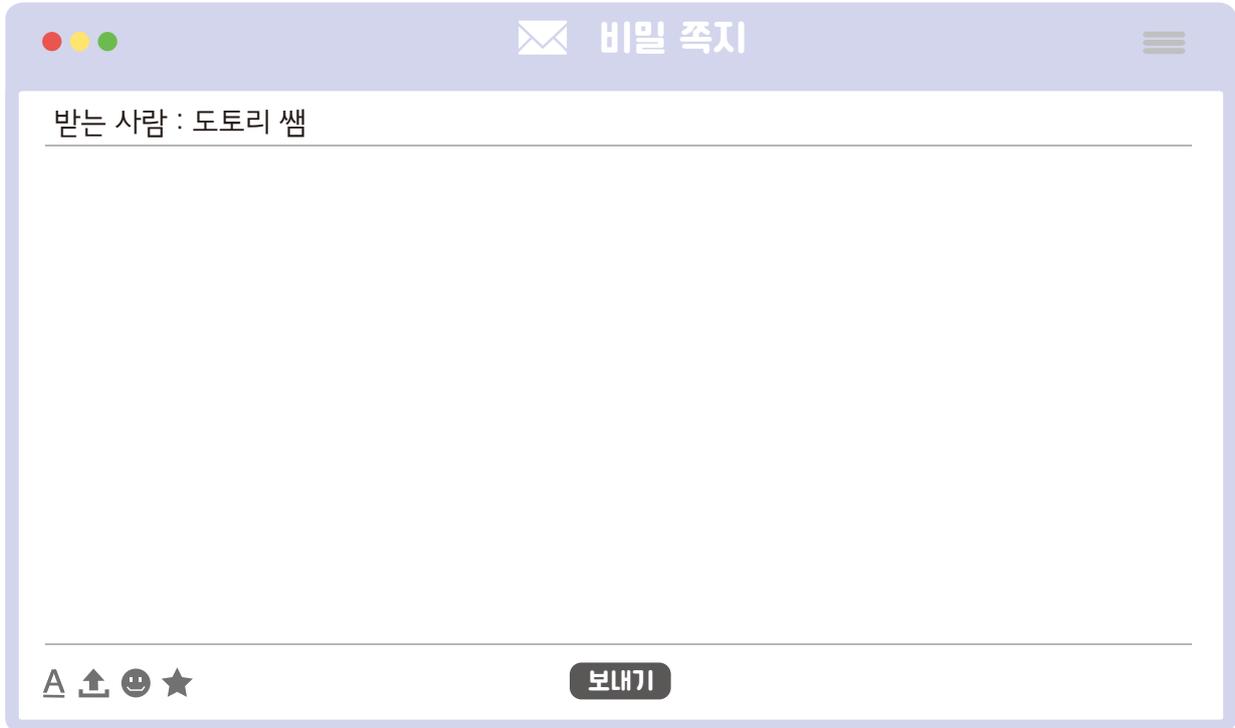
4. 유라는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5. 유라는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9. 유라는 시인이 된 사연과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토리 쌤은 눈물을 터뜨리며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어떤 결심일까요?

3 함께 생각해 보아요!

1.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나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나 고민을 써서, 도토리 쌤 울리기에 도전해 보아요!



받는 사람 : 도토리 쌤

A     

보내기

2. 도리는 도토리 쌤과 만나면서, 시인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생깁니다. 비 내리는 날 밖에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마치 비옷 방패, 우산 칼을 차고 빗방울과 싸우러 나가는 이순신 장군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도리처럼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일상을 시인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을 글로 써 봅시다.

3. 도리는 도토리 쌤이 들려준 이야기를 소재로 시 <똥시>를 씁니다. 우리도 오리의 '흰 점 괴물' 이야기를 읽고 떠오른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볼까요? 도리가 쓴 시에 오리가 그림을 곁들인 것처럼, 우리도 시에 그림을 더해 멋진 시화 작품 만들어 보아요.

